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통계청 고용 완만한 회복세 유지

- 9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4만 9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회복세가 지속되었으나 7월 47만 3천명, 8월 38만 6천명 증가한 것에 비해서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됨.
 - 공공부문의 경우는 지난해 하반기의 대규모 정부일자리 사업에 따른 기저 효과로 취업자 수가 감소세로 나타남.
 - 민간부문의 경우는 공공행정을 제외한 취업자 수가 지난 달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큰 폭으로 증가세를 지속함.
- 추석 효과 등에 의해 전체 취업자 수의 증가폭은 감소했으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증가세는 계속되었으며, 상용직 비중의 상승으로 고용의 질도 제고됨.
 -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00년 8월 이후 최대로 증가했던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 20만명 이상 큰 폭의 증가세가 지속됨.
 - 공공행정을 제외한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보건·복지, 사업지원, 금융·보험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졌으며, 건설업의 경우는 일용직 취업자 수가 감소하여 증가폭이 축소됨.
 - 상용직 중심의 취업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, 임금근로자 대비 상용직 비중도 상승하여 고용의 질이 제고된 것으로 나타남.
- 고용률은 소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으며 실업률은 전년동월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함.
 - 취업자 수의 증가폭이 축소됨에 따라 고용률은 59.1%로 전년동월대비 0.1%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실업률은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 모집 등으로 실업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월과 동일한 3.4%를 나타냄.
 - 청년 취업자(15세~29세) 수가 감소하고 고용률이 하락했으나, 청년 실업률은 7.2%로 전년동월대비 0.4%p 하락함.

(2010년 9월 고용동향, 통계청, 10/20)